

## 주요 노동동향

- 생산 및 물가 동향
- 고용 동향
-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
-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

월간 노동리뷰

2025년 7월호

## 주요 노동동향

### ● 생산 및 물가 동향

#### ◆ 2025년 4월 생산은 전월대비 0.8% 감소(전년동월대비 0.4% 증가)

- 전 산업 생산은 공공행정, 광공업, 서비스업, 건설업에서 생산이 모두 줄어 전월대비 0.8% 감소하였음.
  - 전년동월대비로는 건설업,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줄었으나, 광공업,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늘어 0.4% 증가하였음.
- 제조업 생산은 기계장비, 석유정제 등에서 늘었으나, 자동차, 반도체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0.9% 감소하였음(전년동월대비 5.2% 증가).
-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 등에서 늘었으나, 전문·과학·기술, 금융·보험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0.1% 감소하였음(전년동월대비 0.7% 증가).

#### ◆ 2025년 4월 소비는 전월대비 0.9% 감소,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0.4% 감소

- 소매판매액지수는 의복 등 준내구재(-2.0%), 통신기기·컴퓨터 등 내구재(-1.4%), 의약품 등 비내구재(-0.3%)에서 판매가 모두 줄어 전월대비 0.9% 감소하였음(전년동월대비 0.1% 감소).
-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(9.9%)에서 투자가 늘었으나,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(-4.5%)에서 투자가 줄어 전월대비 0.4% 감소하였음(전년동월대비 8.4% 증가).
- 건설기성(불변)은 전월대비 0.7% 감소하였고, 건설수주(경상)는 전월대비 11.9% 감소하였음.

〈표 1〉 최근 경제일반 동향

(단위 : %, 전기(월)대비, ( ) 안은 전년동월대비)

		연간			분기				분기				월		
		2022	2023	2024	2023				2024				2024	2025	
					1/4	2/4	3/4	4/4	1/4	2/4	3/4	4/4		3월p	4월p
생산	전 산업	4.7	1.1	1.5	0.1	0.9	1.2	0.4	0.4	0.0	-0.4	0.4	1.2	0.9( 0.9)	-0.8( 0.4)
	광공업	1.0	-2.6	4.1	0.6	2.8	1.4	1.8	-0.8	1.8	-0.5	1.5	2.4	2.9( 4.4)	-0.9( 4.9)
	제조업	1.0	-2.6	4.2	0.6	3.0	1.4	1.9	-0.8	1.8	-0.8	2.1	2.6	3.1( 4.7)	-0.9( 5.2)
	건설업	2.6	7.8	-4.7	3.4	-0.4	1.9	-4.2	7.7	-8.2	-3.8	-5.1	3.3	-5.0(-16.3)	-0.7(-20.5)
	서비스업	7.0	3.4	1.1	0.7	0.5	1.0	0.3	0.3	0.0	-0.3	0.7	0.7	-0.1( 0.8)	-0.1( 0.7)
소비	소비재 판매	-0.3	-1.3	-2.1	-0.7	0.4	-1.3	0.8	-2.2	-0.3	0.7	-0.4	-0.3	-1.0( 0.7)	-0.9( -0.1)
투자	설비투자	2.6	-4.8	2.9	-9.0	1.5	-3.8	3.5	-1.5	-1.4	10.2	-1.8	2.0	-0.6( 14.5)	-0.4( 8.4)
물가		5.1	3.6	2.3	1.1	0.6	1.0	0.7	0.7	0.3	0.4	0.2	0.1	0.1( 2.1)	-0.1( 1.9)

주 : 1) 광공업 생산은 광업(B), 제조업(C),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(D)을 포함.

2)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 개정)상의 13개 대분류(도소매업(G), 운수 및 창고업(H), 숙박 및 음식점업(I), 정보통신업(J), 금융 및 보험업(K), 부동산업(L),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M),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(N), 교육서비스업(P),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(Q), 예술·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(R),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(S), 수도·하수·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E))을 포괄함.

3) 2022년 이후 전 산업 연간수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.

4)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24년 5월, 2025년 4월, 2025년 5월 기준임.

5) p는 잠정치임.

6) 생산, 소비, 투자의 분기 및 월 수치는 계절조정계열 전기(월)대비, 연간 수치는 원계열 전년대비임.

7) ( ) 안은 원계열 전년동월대비임.

자료 : 통계청, 『산업활동동향』, 『소비자물가동향』, 각호.

### ◆ 2025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.1% 하락(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0.1% 하락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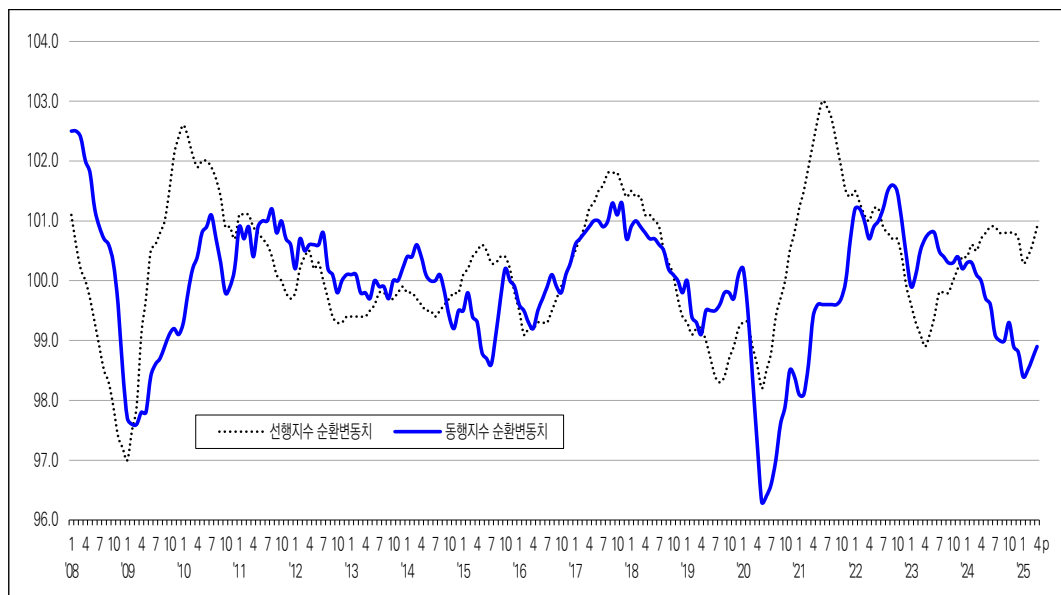
○ 2025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.27(2020=100)로 전월대비 0.1% 하락하였음(전년동월대비 1.9% 상승).

-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, 전월대비 음식·숙박(0.3%), 주택·수도·전기·연료(0.2%), 오락·문화(0.3%), 의류·신발(0.3%), 가정용품·가사서비스(0.2%), 교육(0.1%)은 상승, 보건, 통신, 주류·담배, 기타 상품·서비스는 변동 없고, 교통(-0.2%), 식료품·비주류음료(-1.3%)는 하락하였음.
-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은 전월대비 0.5% 하락, 식품 이외는 전월대비 0.1% 상승하여 전월대비 0.1% 하락하였음.

◆ 2025년 4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.4% 증가,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.5% 증가

-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.2p 상승하였음.
-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.3p 상승하였음.

[그림 1]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·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



주: 1) p는 잠정치임.  
2) 경기선행지수 및 경기동행지수는 2020년=100이 기준.  
자료: 통계청, 『경기종합지수』, KOSIS.

(이기쁨,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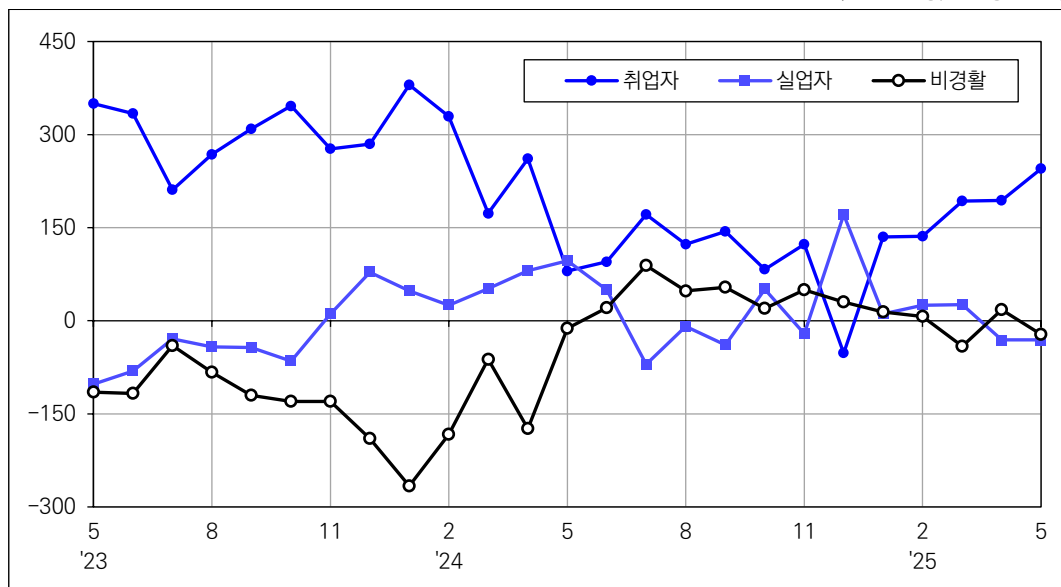
## ● 고용 동향

## ◆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 확대, 전월대비 계절조정 취업자 수 감소

- 2025년 5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4만 5천 명 증가(전월대비<sup>1)</sup> 4만 4천 명 감소)함.
- (연령별)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20대에서 감소폭이 축소됐고, 30대에서는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50대에서는 감소폭이 확대됨.
  - (제조업·건설업) 전년동월대비 제조업과 건설업은 감소폭이 축소됨.
  - (서비스업) 전년동월대비 도소매업은 증가로 전환됐고, 사업시설관리지원은 감소폭이 축소됨. 반면 운수창고업 및 정보통신업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됐고, 숙박음식은 감소로 전환됨.
  - (종사상 지위별)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증가폭은 확대됐고, 임시직 증가폭은 축소됨.
  - (실업·비경제활동인구)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3만 2천 명 감소(전월대비 6천 명 감소)했고, 비경제활동인구는 2만 2천 명 감소(전월대비 6만 4천 명 증가)함.
  - (확장실업률) 계절조정 확장실업률은 8.8%로 전월대비 0.1%p 증가함.

[그림 1] 원계열 취업자, 실업자,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변화

(단위 : 천 명, 전년동월대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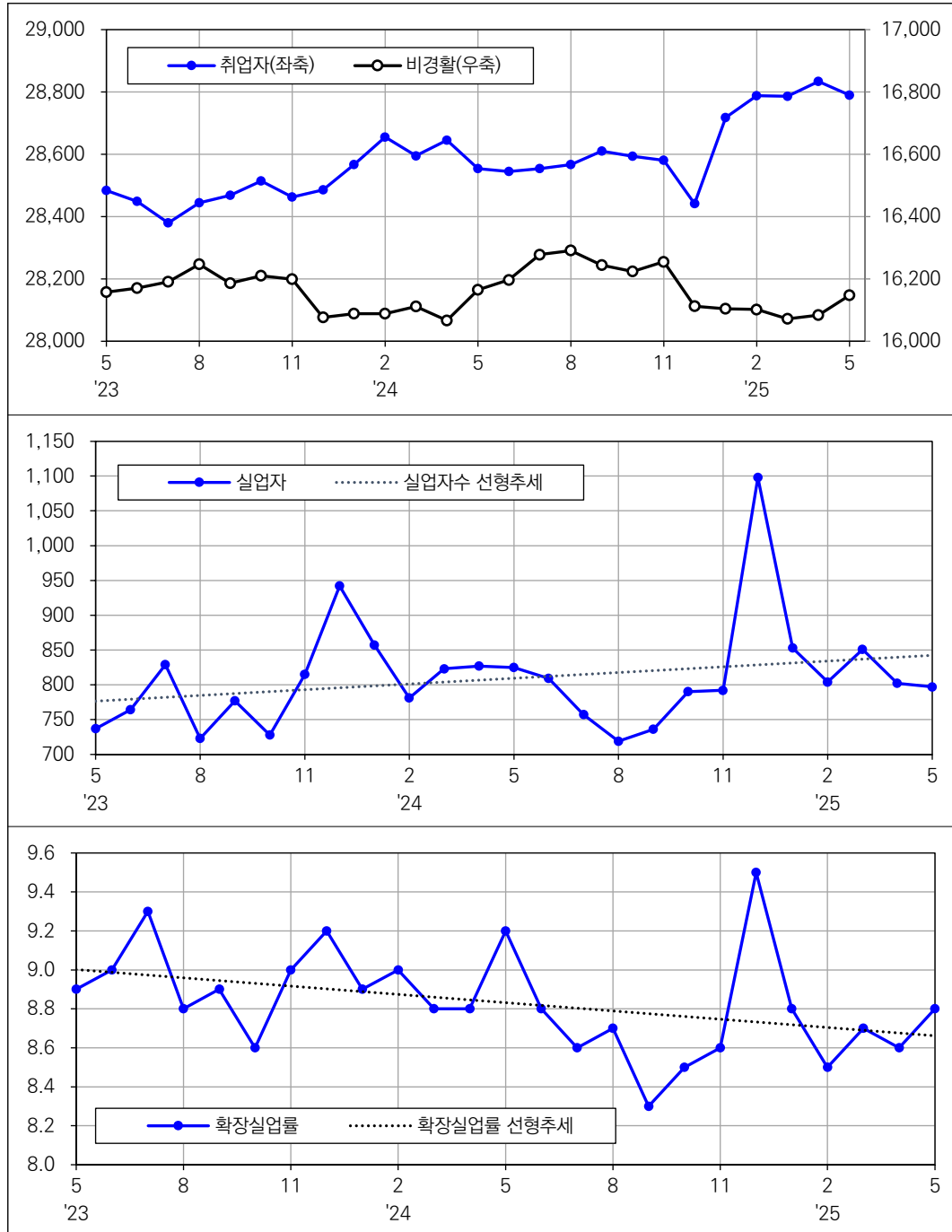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1) 본고에서 전월대비 수치는 통계청 계절조정계열 자료를 활용함.

[그림 2] 계절조정 취업자, 비경제활동인구(상), 실업자 수(중) 및 확장실업률(하) 변화

(단위 : 천 명)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○(연령별) 5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20대에서 감소폭이 축소됐고, 30대에서는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50대에서는 감소폭이 확대됨.

- 20대 취업자 수는 제조업 및 건설업에서 감소폭이 축소됐고, 전문·과학·기술 및 예술·스포츠·여가에서 증가로 전환됨.
- 30대 취업자 수는 건설업 및 협회·단체·수리·기타에서 감소폭이 축소됐고, 제조업에서 증가로 전환된 반면 공공행정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됨.
- 50대 취업자 수는 숙박음식에서 감소폭이 확대됐고, 제조업에서 감소로 전환됨.
- 실업자는 20대와 30대에서 감소로 전환됐지만 50대에서는 증가로 전환됨.
- 비경제활동인구는 20대에서 감소폭이 확대됐지만 50대에서는 증가폭이 확대됨.

〈표 1〉 연령별 취업자 동향

(단위 : 천 명, %p, 전년동월대비, ( )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)

	15~19세				20대				30대			
	3월	4월	5월	(전월비)	3월	4월	5월	(전월비)	3월	4월	5월	(전월비)
취업자	-5	5	-26	(-22)	-202	-179	-124	( 14)	109	93	132	( 25)
실업자	-5	-4	-8	( -3)	31	9	-6	( -7)	-16	4	-17	(-11)
비경황	6	-1	36	( 25)	-33	-37	-72	(-27)	-39	-36	-48	( -6)
실업률	-2.7	-2.7	-3.7	(-1.2)	1.1	0.5	0.0	(-0.3)	-0.3	0.0	-0.3	(-0.2)
고용률	-0.2	0.2	-1.1	(-0.9)	-1.3	-0.9	0.0	( 0.4)	1.0	0.7	1.1	( 0.3)
	40대				50대				60세 이상			
	3월	4월	5월	(전월비)	3월	4월	5월	(전월비)	3월	4월	5월	(전월비)
취업자	-49	-51	-39	(-13)	-26	-14	-68	(-38)	365	340	370	( 21)
실업자	-1	-7	0	( 6)	-9	-8	7	( 4)	26	-25	-8	( 22)
비경황	-101	-94	-109	( -5)	23	0	28	( 30)	104	185	143	( 0)
실업률	0.0	-0.1	0.1	( 0.1)	-0.1	-0.1	0.1	( 0.0)	0.2	-0.5	-0.2	(0.3)
고용률	0.9	0.8	1.0	(-0.1)	-0.2	0.0	-0.5	(-0.4)	0.9	0.7	0.9	(0.0)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○(산업별) 5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제조업 및 건설업에서 감소폭이 축소됐고, 숙박음식에서는 감소로 전환됨.

- 전월대비 취업자는 제조업, 보건복지, 사업시설관리지원, 금융 및 보험업 및 부동산업에서 증가했고, 농림어업, 숙박음식, 공공행정, 운수창고 및 협회·단체·수리·기타에서 감소함.



〈표 2〉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

(단위 : 천 명, 전년동월대비, 전월대비)

	전년동월대비(원계열)			전월대비(계절조정계열)		
	3월	4월	5월	3월	4월	5월
농림어업	-79	-134	-135	-56	-8	-28
광업	3	0	1	-1	-2	1
제조업	-112	-124	-67	-16	18	28
전기·가스·증기	-1	-5	4	3	-5	6
수도·원료재생	14	10	9	8	-7	-1
건설업	-185	-150	-106	-26	16	-7
도매 및 소매업	-26	-3	18	36	8	6
운수 및 창고업	5	27	6	23	27	-14
숙박 및 음식점업	56	1	-67	10	-39	-26
정보통신업	61	72	49	-9	-1	-8
금융 및 보험업	65	65	72	30	2	13
부동산업	-8	-8	-5	7	-3	10
전문·과학·기술	37	113	117	-15	52	-5
사업시설관리지원	-24	-29	-16	22	-11	14
공공행정·사회보장	87	51	32	6	-48	-18
교육서비스업	30	68	70	-7	27	9
보건 및 사회복지	212	218	233	-52	26	22
예술·스포츠·여가	29	3	13	16	2	4
협회·단체·수리·기타	34	27	17	6	-2	-10
가구 내 고용·자가소비	1	-5	1	-8	-1	1
국제 및 외국기관	-7	-3	-1	-1	2	0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- (종사상 지위별) 5월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증가폭은 확대됐고, 임시직 증가폭은 축소됨.
- 상용직은 제조업에서 증가로 전환된 반면 숙박음식에서는 감소로 전환됐고, 정보통신업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됨.
  - 임시직은 건설업 및 제조업에서 감소폭이 축소된 반면 숙박음식에서는 감소폭이 확대됨.
  - 일용직은 농림어업에서 감소폭이 축소된 반면 도소매업 및 제조업에서는 감소폭이 확대됐고, 운수창고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됨.
  - 고용주는 도소매업에서 감소폭이 축소됨.
  - 자영자는 숙박음식 및 제조업에서 증가폭이 축소됐고, 협회단체에서 감소로 전환됨.

〈표 3〉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

(단위 : 천 명, 전년동월대비, 전월대비)

	전년동월대비(원계열)			전월대비(계절조정계열)		
	3월	4월	5월	3월	4월	5월
상용직	234	279	362	31	96	40
임시직	126	52	25	-8	-54	-5
일용직	-100	-54	-59	8	31	-8
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(고용주)	-29	-16	-11	-21	8	15
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(자영자)	28	11	-12	21	-32	-29
무급가족종사자	-65	-77	-61	2	5	-6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〈표 4〉 종사상 지위별,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

(단위 : 천 명, 전년동월대비)

	상용직			임시직			일용직			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			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		
	3월	4월	5월	3월	4월	5월	3월	4월	5월	3월	4월	5월	3월	4월	5월
농림어업	4	2	-1	-4	-3	-7	-5	-14	-2	2	-6	-1	-57	-77	-89
제조업	-72	-58	16	-51	-96	-81	-10	-5	-14	-6	2	-4	25	31	21
건설업	-60	-43	-35	-53	-61	-31	-68	-40	-37	6	5	2	-6	-10	-9
도소매	-45	-18	-6	63	71	61	-9	-11	-27	-15	-21	-7	-8	-11	0
운수창고	29	37	30	-2	5	-2	6	21	10	-12	-17	-18	-15	-16	-8
숙박음식	44	15	-3	25	-3	-48	-5	-19	-16	4	5	7	10	20	6
정보통신	62	56	33	-14	6	9	2	2	-1	1	-1	-3	11	11	13
금융보험	50	40	48	13	26	26	0	0	0	-2	-1	-1	4	0	-1
부동산	6	7	13	-6	-16	-12	-1	1	-1	-3	1	0	1	4	-1
전문과학기술	18	91	90	-4	4	6	-1	-4	3	-6	-2	-8	28	24	26
사업관리지원	-9	-17	-10	-18	-23	-11	-6	6	8	-7	-6	-9	13	10	6
공공행정	67	42	35	22	8	2	-3	1	-5	0	0	0	0	0	0
교육서비스	12	4	13	7	27	17	-4	-5	-6	-1	14	17	16	29	29
보건복지	81	89	101	138	134	133	0	2	1	-5	-2	1	-2	-4	-3
예술스포츠	10	12	17	6	-16	-21	-2	6	7	5	6	6	12	-2	6
협회단체	34	23	18	-4	-12	-11	5	6	12	9	9	8	-6	2	-11
가구 내 고용	-2	-2	-2	7	1	-4	-2	-1	8	0	0	0	-3	-2	-1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○ (실업·비경황) 5월 전년동월대비 전직 1년 이내 일자리 경험이 있는 실업자는 15~29세와 30대에서 감소로 전환된 영향으로 감소폭이 확대됨.

- 업종별로 사업시설관리지원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됐고, 도소매업 및 공공행정에서는 감소로 전환됨. 반면 교육서비스업에서는 증가로 전환됨.
- 비경제활동인구는 남성은 '쉬었음'에서 증가폭이 확대됨. 여성은 '육아·가사'에서 감소폭이 확대됐고, '쉬었음'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'취업준비'에서는 증가폭이 확대됨.

〈표 5〉 전직 일자리 경험자의 주요 종사산업별 실업자 증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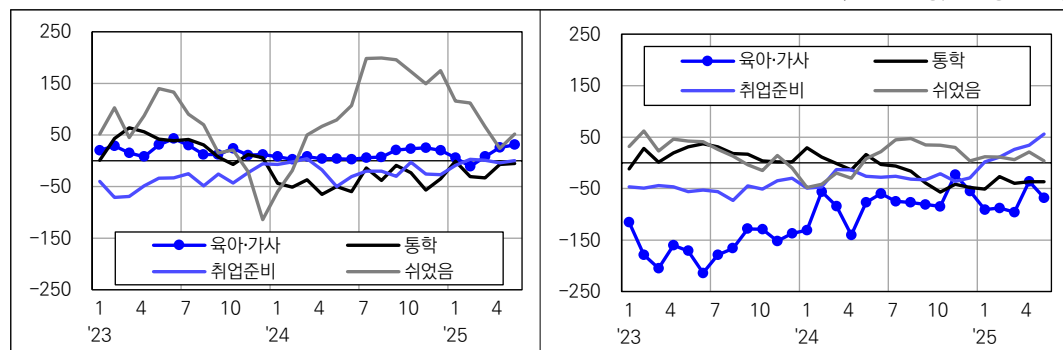
(단위 : 천 명, 전년동월대비)

	전체		15~29세		30대		40대		50대		60세 이상	
	4월	5월	4월	5월	4월	5월	4월	5월	4월	5월	4월	5월
1년 이내 일자리 경험 유	-15	-31	12	-16	5	-2	-2	0	-3	0	-26	-13
제조업	-17	-20	3	-13	-7	-7	0	3	-8	-1	-5	-3
건설업	6	3	2	1	6	0	-3	1	0	2	2	-2
도매 및 소매업	6	-2	-1	2	7	2	-3	-6	8	6	-6	-6
운수 및 창고업	5	5	3	1	2	-2	2	3	1	1	-2	2
숙박 및 음식점업	11	7	23	7	-5	0	3	2	-8	-4	-3	2
정보통신업	-4	-2	-9	-1	7	4	-2	-4	-1	-1	2	0
금융 및 보험업	-1	-1	3	0	-3	-1	-2	1	2	-1	0	0
전문·과학·기술	10	11	9	1	0	2	1	6	4	2	-3	0
사업시설관리지원	12	1	4	0	2	4	6	2	3	-2	-3	-3
공공행정·사회보장	2	-6	2	2	1	-1	0	-1	-1	-5	2	-1
교육서비스업	-1	5	4	3	-7	-2	0	-2	1	6	1	1
보건 및 사회복지	-16	-11	-9	-8	-1	-4	-4	-1	-5	-3	3	4
예술·스포츠·여가	-5	-4	-12	-4	3	-1	0	0	2	0	2	0
협회·단체	-9	-7	-5	-3	0	1	1	0	-1	1	-5	-5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[그림 3] 성별(좌 : 남성, 우 : 여성) 및 사유별 비경제활동인구 증감

(단위 : 천 명, 전년동월대비)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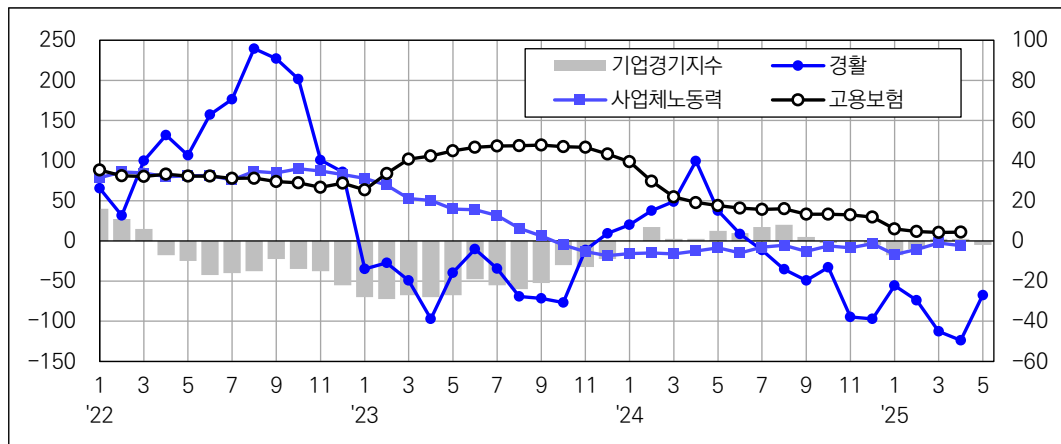
### ◆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폭 축소,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증가폭 축소

○ 5월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 수는 6만 7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축소됨. 계절조정계열 취업자는 전월대비 2만 8천 명 증가함.

-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증가폭을 유지했고, 사업체노동력조사 중 사자 수는 감소폭이 확대됨.
- 기업경기지수는 81로 전년동월대비 감소함.

[그림 4] 제조업 고용 증감(좌) 및 기업경기지수(우) 증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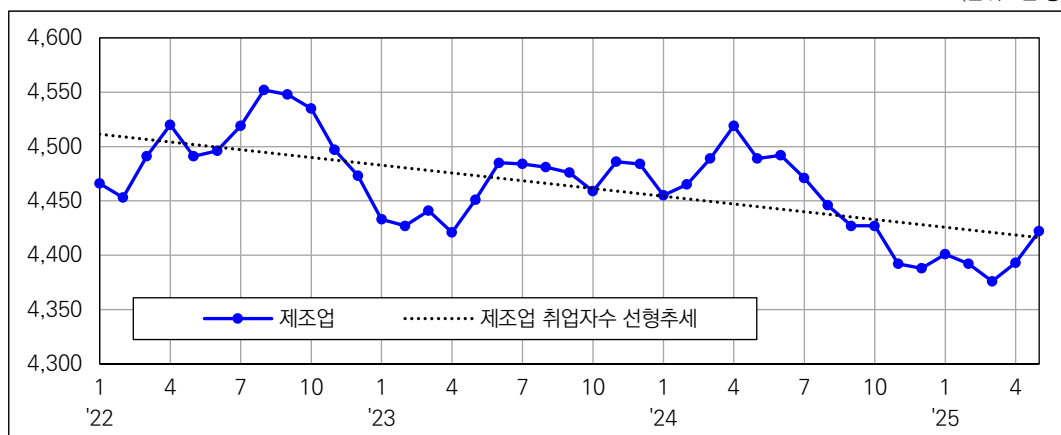
(단위 : 천 명, p, 전년동월대비)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;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; 한국고용정보원, 「고용행정통계」; 한국은행, 「기업경기조사」.

[그림 5] 계절조정 제조업 취업자 수

(단위 : 천 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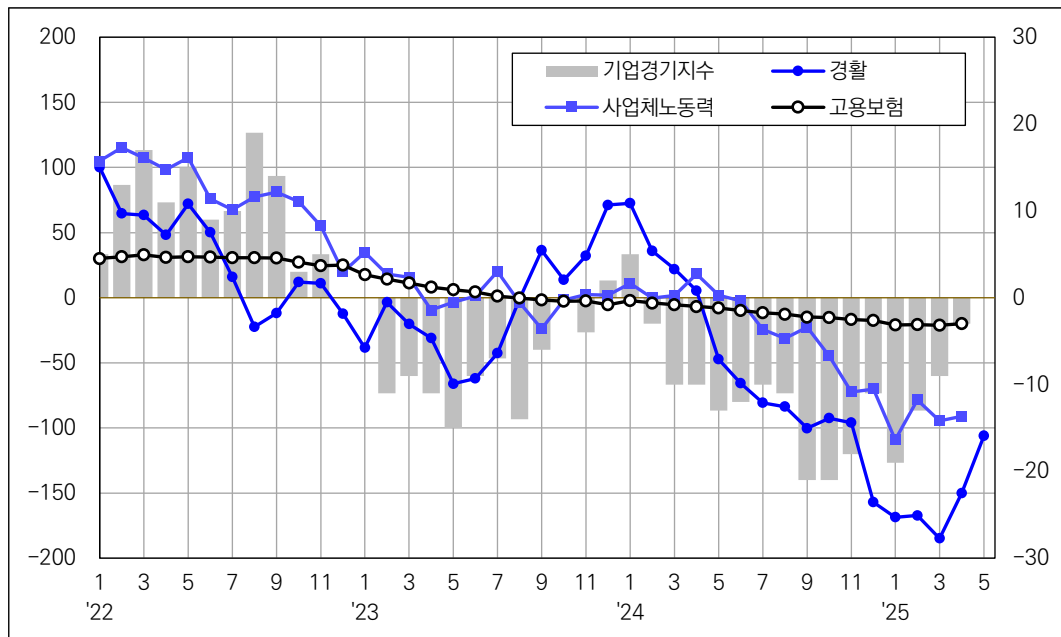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- 5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0만 6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축소됨.
  - －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 수는 감소폭이 축소됐고, 피보험자 수도 감소폭이 축소됨.
  - － 기업경기지수는 전년동월 수준임.

[그림 6] 건설업 고용 증감(좌) 및 기업경기지수(우) 증감

(단위 : 천 명, p, 전년동월대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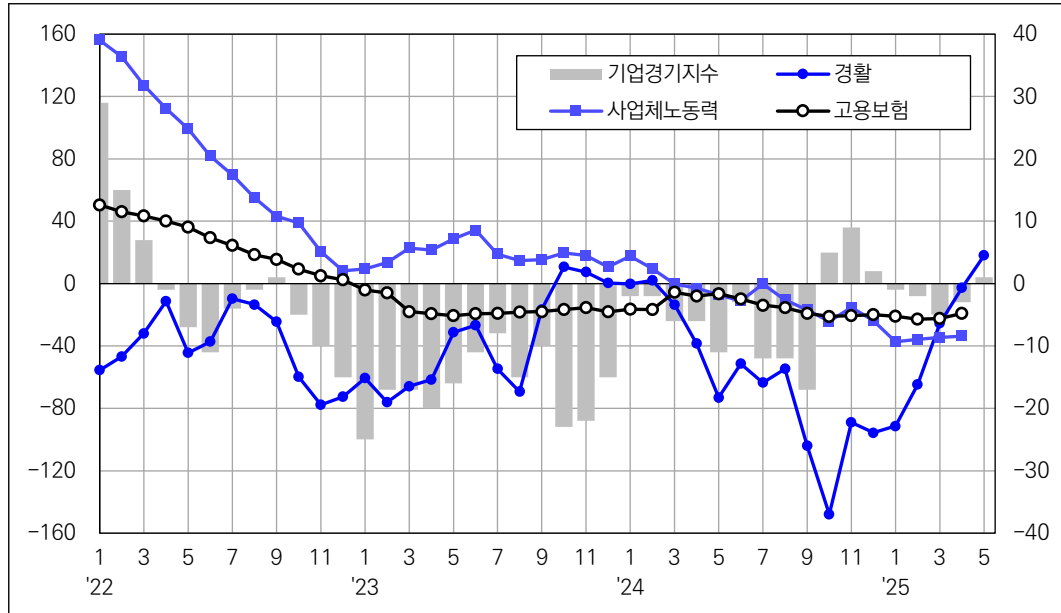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;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; 한국고용정보원, 「고용행정통계」; 한국은행, 「기업경기조사」.

- 5월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54만 9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됨.
  - － (도소매) 취업자 수가 증가로 전환됐고, 피보험자 수 감소폭도 축소됨. 기업경기지수는 증가로 전환됨.
  - － (운수창고) 취업자 수 증가폭은 축소됐지만, 사업체 종사자 및 피보험자 수는 증가폭이 확대됨.
  - － (숙박음식) 취업자 수는 감소로 전환됐지만, 사업체 종사자 수는 감소폭이 축소됨.
  - － (정보통신) 취업자 수는 증가폭이 축소됐지만, 피보험자 수는 감소폭이 축소됨. 기업경기지수는 증가로 전환됨.
  - － (사업시설) 취업자 수 감소폭은 축소됐고, 사업체 종사자 및 피보험자 수 증가폭도 확대됨.

[그림 7] 도매 및 소매업 고용 증감(좌) 및 기업경기지수(우) 증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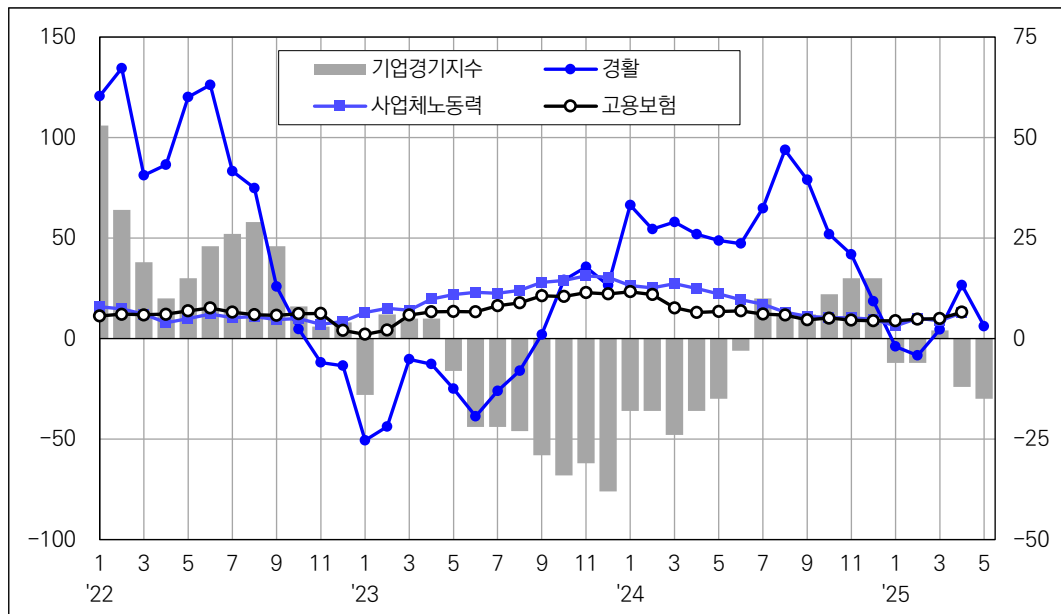
(단위 : 천 명, p, 전년동월대비)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;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; 한국고용정보원, 「고용행정통계」; 한국은행, 「기업경기조사」.

[그림 8] 운수 및 창고업 고용 증감(좌) 및 기업경기지수(우) 증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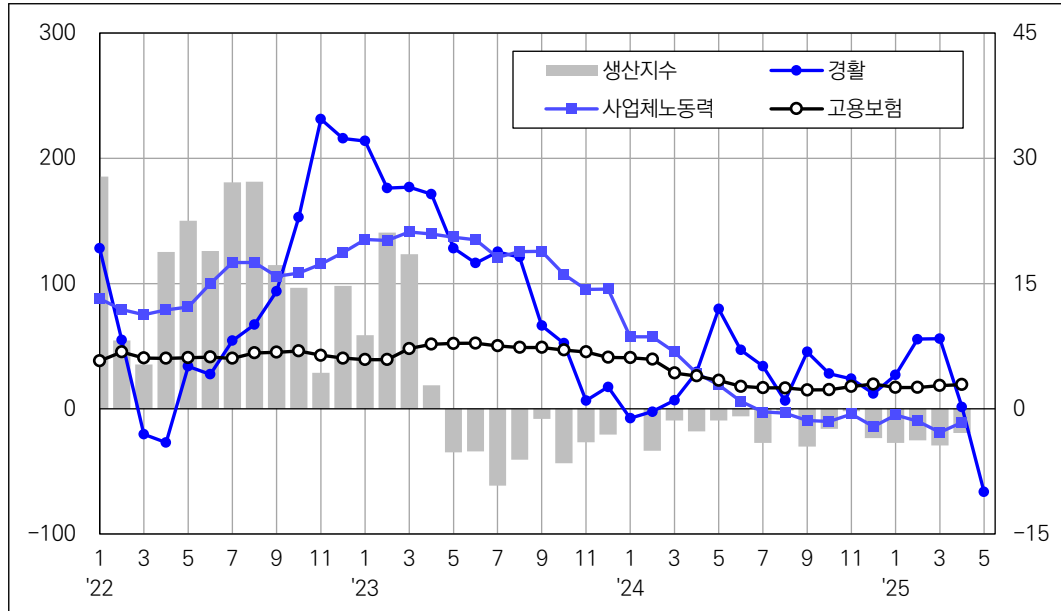
(단위 : 천 명, p, 전년동월대비)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;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; 한국고용정보원, 「고용행정통계」; 한국은행, 「기업경기조사」.

[그림 9] 숙박 및 음식점업 고용 증감(좌) 및 생산지수(우) 증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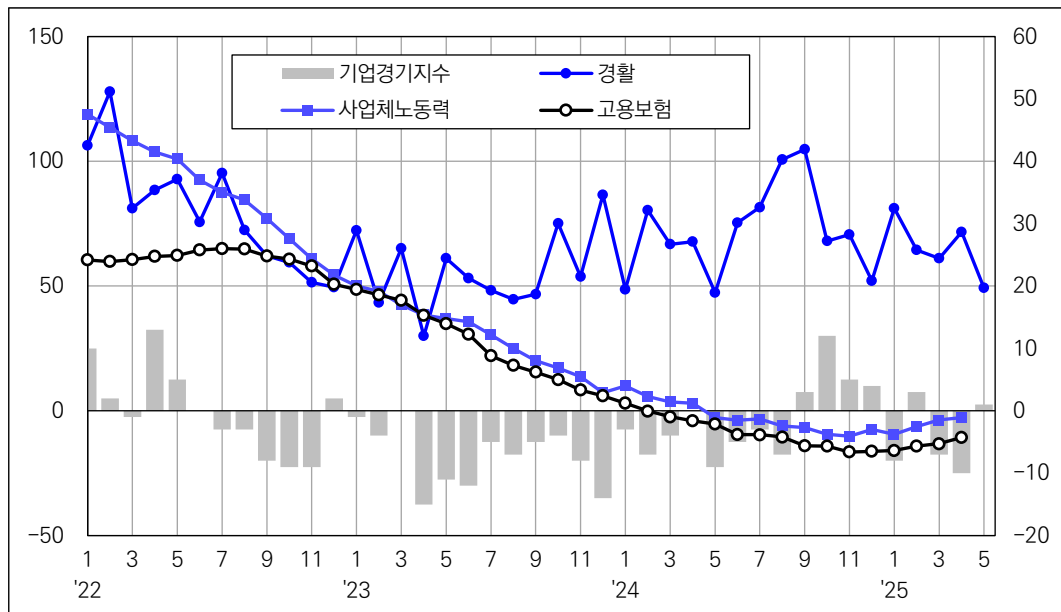
(단위 : 천 명, p, 전년동월대비)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, 「서비스업동향조사」;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; 한국고용정보원, 「고용행정통계」.

[그림 10] 정보통신업 고용 증감(좌) 및 기업경기지수(우) 증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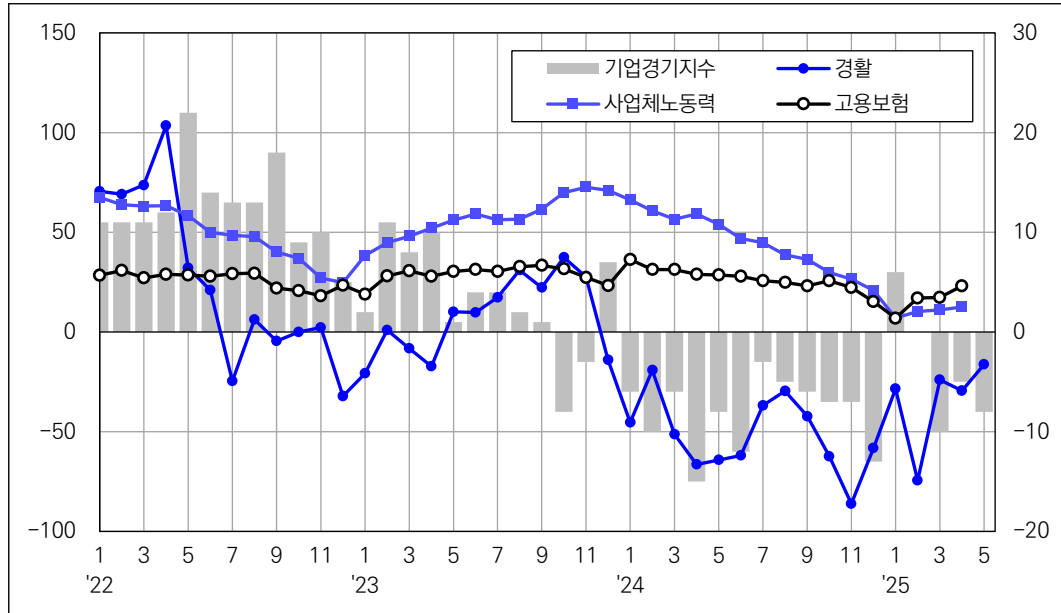
(단위 : 천 명, p, 전년동월대비)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;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; 한국고용정보원, 「고용행정통계」; 한국은행, 「기업경기조사」.

[그림 11] 사업시설 관리,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고용 증감(좌) 및 기업경기지수(우) 증감

(단위 : 천 명, p, 전년동월대비)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;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; 한국고용정보원, 「고용행정통계」; 한국은행, 「기업경기조사」.

(지상훈,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)



## ●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

### ◆ 2025년 3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3.1% 증가

- 2025년 3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13만 6천 원(3.1% 상승)이었음.
  - － 2025년 3월 상용근로자(439만 1천 원)의 임금은 3.2% 증가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(177만 5천 원)의 임금은 3.9% 감소하였음.
  - － 상용근로자의 임금이 증가한 데는 특별급여의 플러스(+) 전환이 크게 작용하였음.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는 금융 및 보험업(31.4%)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가운데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업(7.4%),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(8.1%), 건설업(6.6%), 제조업(6.1%) 순으로 증가하였고, 부동산업(-24.8%)과 정보통신업(-19.7%) 부문에서는 감소하였음.
  - ※ 초과급여: 연장(야근근로 포함)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 
특별급여: 상여금, 성과급, 임금인상소급분,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
  - －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은 7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음. 부동산업(-22.5%)과 건설업(-3.1%) 부문에서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 감소폭이 컸음.
  - － 건설업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 감소는 건설업 부진 영향으로,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건설업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 축소로 인한 구성효과 영향이 큼.

### ◆ 2025년 3월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1.1% 증가

-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355만 7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.1% 증가하였음.

### ◆ 2025년 1~3월 평균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은 전년동평균대비 각각 4.5%, 2.3% 증가

- 2025년 1~3월 평균 명목임금은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가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동평균대비 4.5%(3.2%p) 증가하였고, 큰 폭으로 증가한 명목임금은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한 실질임금의 증가로 이어짐.

〈표 1〉 임금 동향(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)

(단위 : 천 원, %, 2020=100.0)

		2021	2022	2023	2024	2024		2025	
						1~3월	3월	1~3월	3월
전체 근로자 임금총액		3,689 ( 4.6)	3,869 ( 4.9)	3,966 ( 2.5)	4,079 ( 2.9)	4,216 ( 1.3)	4,010 ( 2.9)	4,406 ( 4.5)	4,136 ( 3.1)
상용 근로자	임금총액	3,893 ( 4.7)	4,095 ( 5.2)	4,211 ( 2.8)	4,338 ( 3.0)	4,482 ( 1.3)	4,255 ( 3.0)	4,678 ( 4.4)	4,391 ( 3.2)
	정액급여	3,181 ( 3.4)	3,319 ( 4.3)	3,444 ( 3.8)	3,555 ( 3.2)	3,544 ( 3.4)	3,534 ( 3.2)	3,655 ( 3.1)	3,641 ( 3.0)
	초과급여	208 ( 3.7)	220 ( 5.7)	227 ( 3.3)	240 ( 5.8)	229 ( 8.5)	236 ( 8.6)	241 ( 5.3)	246 ( 4.0)
	특별급여	504 (14.3)	556 (10.4)	540 (-2.9)	542 ( 0.4)	708 (-10.0)	485 (-0.6)	782 (10.4)	504 ( 3.9)
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		1,700 ( 3.9)	1,747 ( 2.8)	1,785 ( 2.2)	1,809 ( 1.4)	1,808 ( 4.5)	1,848 ( 4.5)	1,754 (-3.0)	1,775 (-3.9)
소비자물가지수		102.5 ( 2.5)	107.7 ( 5.1)	111.6 ( 3.6)	114.2 ( 2.3)	113.6 ( 3.0)	114.0 ( 3.1)	116.0 ( 2.1)	116.3 ( 2.1)
실질임금증가율		2.0	-0.2	-1.1	0.5	-1.7	-0.2	2.3	1.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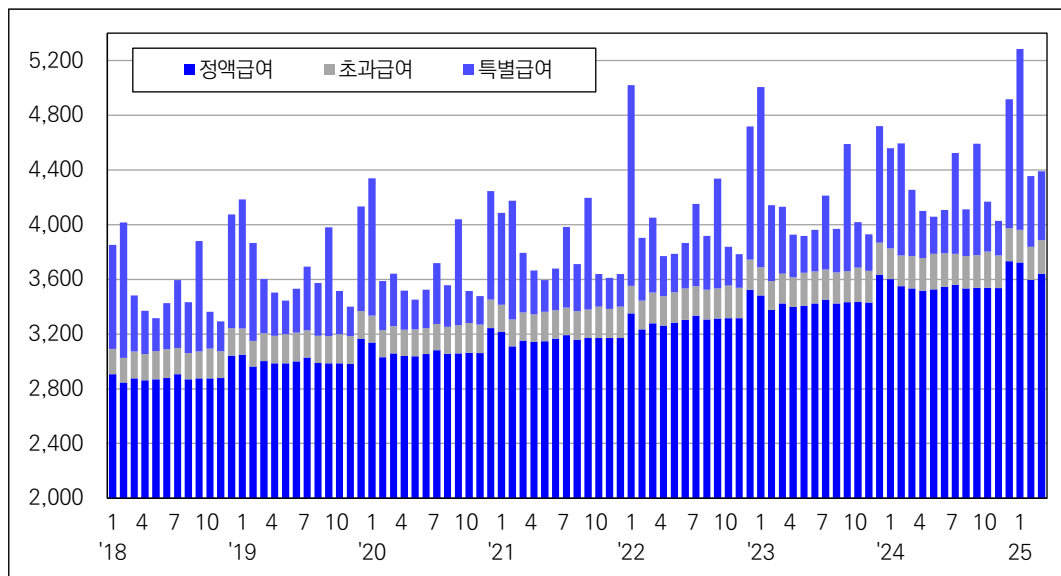
주 : 1)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.

2) ( ) 안은 전년대비, 전년동평균대비,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.

자료 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, 통계청, <https://kosis.kr/>

[그림 1] 상용근로자의 임금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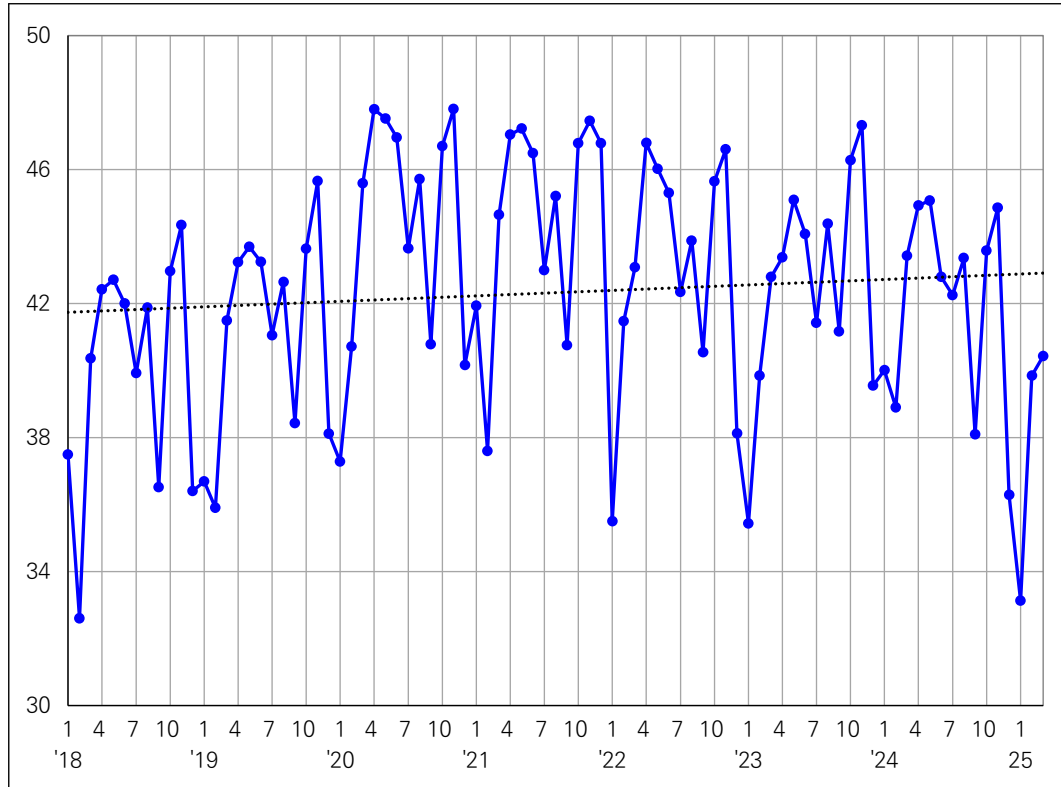
(단위 : 천 원)



자료 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[그림 2] 임시일용근로자의 상대임금 비율

(단위 : %, 상용근로자 임금=100)



자료 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#### ◆ 2025년 3월 중소·대규모 사업체 모두 전년동월대비 임금 증가

○ 2025년 3월 중소기업(상용근로자 1~299인, 366만 9천 원) 사업체와 대규모(상용근로자 300인 이상, 640만 4천 원) 사업체의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2.4%, 4.8% 증가하였음.

- 중소기업에서는 특별급여가 감소한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임금증가폭이 둔화된 반면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특별급여가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임금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.
- 대규모 사업체의 특별급여는 금융 및 보험업(40.4%)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, 건설업(40.3%), 도매 및 소매업(20.5%), 제조업(10.0%) 부문에서 증가하였음.
-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은 중소·대규모 사업체 모두 전년동월대비 각각 4.3%, 0.3% 감소하였음.

〈표 2〉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(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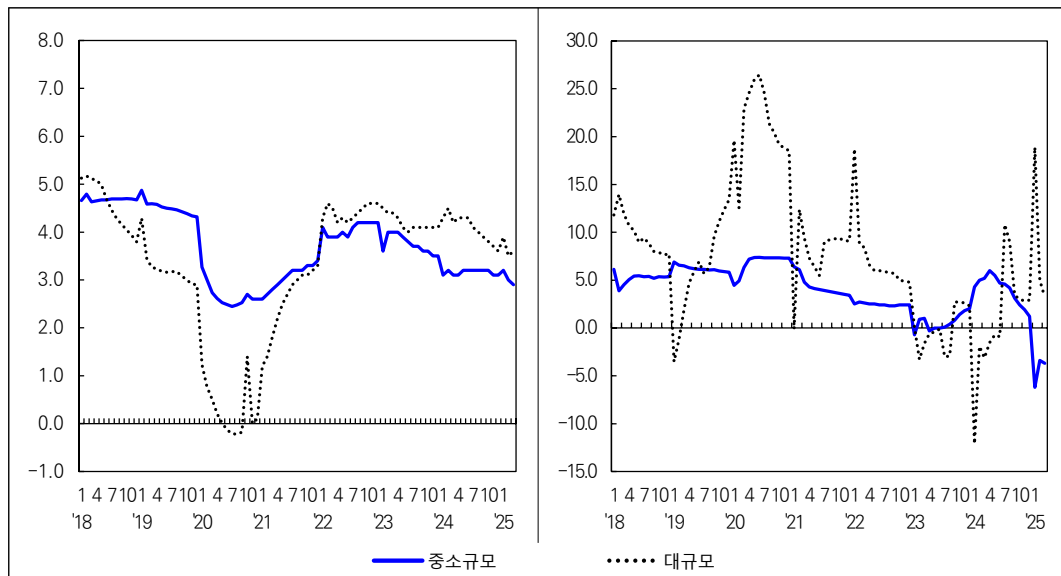
(단위 : 천 원, %)

		2023	2024	2024		2025	
				1~3월	3월	1~3월	3월
중소 규모	소 계	3,537 ( 2.2)	3,479 ( 3.0)	3,691 ( 3.1)	3,582 ( 3.1)	3,410 ( 2.9)	3,669 ( 2.4)
	상용임금총액	3,767 ( 2.5)	201 ( 3.2)	3,933 ( 3.1)	3,810 ( 3.2)	203 ( 2.8)	3,906 ( 2.5)
	정액급여	3,249 ( 3.5)	663 ( 3.1)	3,330 ( 3.1)	3,319 ( 3.0)	292 ( 2.9)	3,410 ( 2.8)
	초과급여	187 ( 0.8)	1,731 ( 5.6)	189 ( 8.7)	196 ( 7.9)	1,751 ( 4.4)	203 ( 3.6)
	특별급여	331 (-5.3)	7,318 ( 2.6)	415 ( 0.6)	295 ( 1.7)	6,404 ( 1.0)	292 (-1.1)
	임시일용임금총액	1,746 ( 2.0)	7,498 ( 1.2)	1,775 ( 5.2)	1,829 ( 5.4)	6,562 (-3.7)	1,751 (-4.3)
대규모	소 계	6,071 ( 2.5)	4,873 ( 2.5)	6,793 ( -3.3)	6,111 ( 2.5)	4,674 ( 8.2)	6,404 ( 4.8)
	상용임금총액	6,212 ( 2.7)	418 ( 2.4)	6,957 ( -3.3)	6,256 ( 2.6)	435 ( 8.3)	6,562 ( 4.9)
	정액급여	4,325 ( 4.1)	2,207 ( 3.6)	4,513 ( 4.2)	4,501 ( 3.8)	1,453 ( 3.6)	4,674 ( 3.8)
	초과급여	406 ( 7.6)	2,583 ( 6.1)	411 ( 7.8)	415 (10.0)	2,142 ( 7.0)	435 ( 4.7)
	특별급여	1,481 (-2.3)	3,642 (-2.0)	2,032 (-18.2)	1,340 (-2.9)	3,799 (18.8)	1,453 ( 8.5)
	임시일용임금총액	2,375 ( 2.3)	3,887 ( 2.9)	2,323 ( -3.1)	2,149 (-5.6)	4,043 ( 3.2)	2,142 (-0.3)

주 : 1)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.

2) ( ) 안은 전년대비, 전년동평균대비,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.

자료 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[그림 3]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증가율(좌, 누계)과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증가율(우, 누계) 추이  
(단위 : %)

주 : 1인 기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.

자료 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◆ 2025년 1~3월 평균 중소·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은 각각 2.9%, 8.2% 증가

○ 대규모 사업체에서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가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동평균대비 임금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.

◆ 2025년 3월 금융 및 보험업의 임금이 크게 증가

○ 2025년 3월 임금이 크게 증가한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(11.7%),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(4.3%), 숙박 및 음식점업(4.1%) 순으로 나타남.

〈표 3〉 산업별 임금 동향(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, 제10차 표준산업분류)

(단위: 천 원, %)

	2023	2024	2024		2025	
			1~3월	3월	1~3월	3월
전 산업	3,966 ( 2.5)	4,079 ( 2.9)	4,216 ( 1.3)	4,010 ( 2.9)	4,406 ( 4.5)	4,136 ( 3.1)
광업	4,636 ( 0.6)	4,900 ( 5.7)	4,982 ( 5.7)	4,830 ( 2.3)	4,947 (-0.7)	4,812 (-0.4)
제조업	4,633 ( 3.3)	4,755 ( 2.6)	4,932 (-2.8)	4,532 ( 2.6)	5,270 ( 6.8)	4,678 ( 3.2)
전기·가스·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7,188 ( 4.1)	7,687 ( 6.9)	8,646 ( 9.6)	9,947 (16.1)	8,231 (-4.8)	9,859 (-0.9)
수도·하수·폐기물 처리 및 원료재생업	4,297 ( 3.1)	4,431 ( 3.1)	4,419 ( 5.0)	4,393 ( 6.3)	4,544 ( 2.8)	4,533 ( 3.2)
건설업	3,359 ( 4.0)	3,455 ( 2.9)	3,516 ( 4.1)	3,441 ( 3.5)	3,707 ( 5.4)	3,549 ( 3.2)
도매 및 소매업	3,921 ( 3.9)	4,031 ( 2.8)	4,163 ( 3.6)	4,040 ( 3.6)	4,224 ( 1.5)	4,128 ( 2.2)
운수 및 창고업	4,185 ( 3.6)	4,326 ( 3.4)	4,412 ( 5.8)	4,444 (12.5)	4,542 ( 3.0)	4,549 ( 2.4)
숙박 및 음식점업	2,097 ( 4.7)	2,134 ( 1.8)	2,172 ( 3.7)	2,088 ( 2.4)	2,229 ( 2.6)	2,173 ( 4.1)
정보통신업	5,120 ( 2.4)	5,338 ( 4.2)	5,745 ( 4.4)	5,479 ( 4.3)	5,990 ( 4.3)	5,467 (-0.2)
금융 및 보험업	7,338 ( 0.2)	7,443 ( 1.4)	8,421 (-0.9)	7,545 (-2.8)	9,151 ( 8.7)	8,425 (11.7)
부동산업	3,117 ( 1.0)	3,165 ( 1.5)	3,234 ( 2.7)	3,185 ( 3.3)	3,271 ( 1.1)	3,171 (-0.4)
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	5,464 ( 1.6)	5,646 ( 3.3)	5,663 ( 0.6)	5,289 (-0.5)	5,840 ( 3.1)	5,395 ( 2.0)
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	2,687 ( 4.0)	2,787 ( 3.7)	2,800 ( 4.5)	2,732 ( 5.5)	2,896 ( 3.4)	2,792 ( 2.2)
교육서비스업	3,508 ( 2.1)	3,602 ( 2.7)	3,875 ( 3.7)	3,841 ( 5.2)	3,990 ( 3.0)	3,923 ( 2.1)
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	3,132 ( 0.3)	3,218 ( 2.7)	3,227 ( 2.8)	3,119 ( 2.5)	3,367 ( 4.3)	3,253 ( 4.3)
예술·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3,058 (-0.6)	3,111 ( 1.7)	3,202 ( 1.8)	2,997 ( 2.8)	3,277 ( 2.3)	3,031 ( 1.1)
협회·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	3,009 ( 6.2)	3,126 ( 3.9)	3,134 ( 1.7)	3,020 (-0.6)	3,239 ( 3.3)	3,095 ( 2.5)

주: 1)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.

2) 2020년 3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.

3) ( ) 안은 전년대비, 전년동평균대비,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.

자료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- 전기·가스·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(-0.9%), 부동산업(-0.4%), 광업(-0.4%), 정보통신업(-0.2%) 부문에서는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가 감소한 영향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임금이 감소하였음.
- 3월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전기·가스·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(985만 9천 원), 금융 및 보험업(842만 5천 원)이었고, 임금총액이 가장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(217만 3천 원)이었음.

◆ 2025년 1~3월 평균 전기·가스·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과 광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평균대비 임금 증가

- 금융 및 보험업(8.7%), 제조업(6.8%), 건설업(5.4%) 순으로 전년동평균대비 임금 증가폭이 컸고, 전기·가스·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(-4.8%)과 광업(-0.7%)은 전년동평균대비 임금이 감소하였음.

◆ 2025년 3월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0.6시간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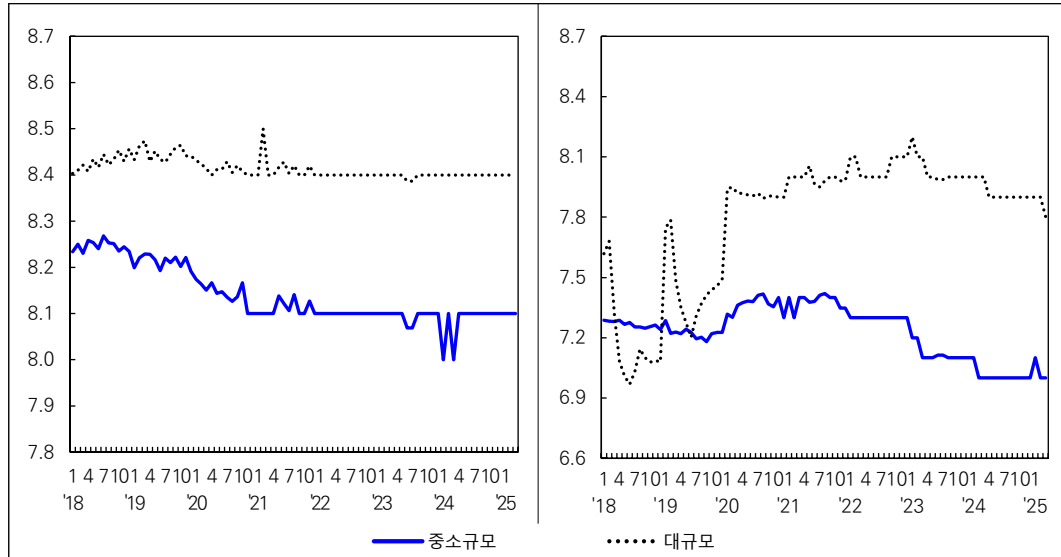
- 2025년 3월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3.3시간(0.6시간 감소)이었음.
  - 월력상 근로일수(20일)는 전년과 동일하였음. 상용근로자(160.0시간)·임시일용근로자(85.9시간)의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0.8시간, 1.2시간 감소하였음.

◆ 2025년 3월 중소·대규모 사업체 모두 전년동월대비 근로시간 감소

- 2025년 3월 중소(152.5시간)·대규모(157.3시간) 사업체의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0.4시간, 1.3시간 감소하였음.

[그림 4]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(좌, 누계)과 임시일용근로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(우, 누계) 추이

(단위 : 시간/일)



주 :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전체 근로시간을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전체 근로일수로 나눈 것임.  
자료 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<표 4>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(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)

(단위 : 시간, %)

		2023	2024	2024		2025	
				1~3월	3월	1~3월	3월
중소 규모	전체 근로시간	155.3(-1.9)	153.9(-0.9)	153.8(-1.9)	152.9(-7.6)	152.5(-3.9)	152.5 (-0.3)
	상용 총근로시간	164.0(-1.1)	163.0(-0.6)	162.5(-1.6)	161.7(-7.3)	160.9(-4.3)	160.9 (-0.5)
	상용 소정실근로시간	156.7(-0.9)	155.6(-0.7)	155.4(-1.9)	154.2(-7.9)	153.5(-4.6)	153.5 (-0.5)
	상용 초과근로시간	7.3(-5.2)	7.4 ( 1.4)	7.1 ( 4.4)	7.4 ( 2.8)	7.4 ( 1.4)	7.4 ( 0.0)
	임시일용 근로시간	88.2(-8.5)	84.3(-4.4)	84.7(-5.0)	85.7(-7.8)	84.5(-2.8)	84.5 (-1.4)
대규모	전체 근로시간	160.5( 0.1)	159.4(-0.7)	159.8(-1.1)	158.6(-6.3)	157.3(-4.4)	157.3 (-0.8)
	상용 총근로시간	162.1( 0.2)	161.3(-0.5)	161.5(-1.0)	160.4(-6.3)	159.2(-4.5)	159.2 (-0.7)
	상용 소정실근로시간	150.9( 0.2)	149.8(-0.7)	150.3(-1.4)	149.1(-7.1)	148.0(-4.9)	148.0 (-0.7)
	상용 초과근로시간	11.2( 1.8)	11.4( 1.8)	11.1( 3.7)	11.3( 6.6)	11.2( 1.8)	11.2 (-0.9)
	임시일용 근로시간	117.5(-5.9)	111.9(-4.7)	115.7(-2.4)	110.8(-6.8)	106.3(-5.4)	106.3 (-4.1)

주 : ( ) 안은 전년대비, 전년동평균대비,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.  
자료 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### ◆ 2025년 3월 건설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근로시간 감소

○ 2025년 3월 월평균 근로시간 감소폭이 컸던 산업은 전기·가스·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(-4.3%)이었고, 근로시간 증가폭이 컸던 산업은 건설업(1.4%)이었음.

－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제조업(168.3시간), 수도·하수·폐기물 처리 및 원료재생업(167.2시간) 순이었고,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(129.8시간)이었음.

〈표 5〉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(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, 제10차 표준산업분류)

(단위 : 시간, %)

	2023	2024	2024		2025	
			1~3월	3월	1~3월	3월
전 산업	156.2(-1.6)	154.9(-0.8)	154.8(-1.8)	153.9(-7.3)	148.6(-4.0)	153.3(-0.4)
광업	168.5(-3.6)	169.9( 0.8)	166.9(-2.2)	168.9(-8.2)	160.7(-3.7)	166.5(-1.4)
제조업	170.5(-0.4)	169.7(-0.5)	169.9(-1.0)	169.5(-6.8)	162.1(-4.6)	168.3(-0.7)
전기·가스·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160.0( 0.9)	156.6(-2.1)	156.1(-2.0)	155.8(-0.3)	149.8(-4.0)	149.1(-4.3)
수도·하수·폐기물 처리 및 원료재생업	170.0(-2.5)	169.2(-0.5)	169.0(-1.1)	168.0(-5.8)	162.1(-4.1)	167.2(-0.5)
건설업	128.7(-4.2)	127.7(-0.8)	128.2(-1.8)	128.0(-7.8)	127.8(-0.3)	129.8( 1.4)
도매 및 소매업	159.2(-1.9)	157.8(-0.9)	157.4(-2.4)	156.0(-7.7)	150.0(-4.7)	154.4(-1.0)
운수 및 창고업	160.6( 0.0)	159.5(-0.7)	159.2(-0.8)	158.7(-5.6)	154.0(-3.3)	157.7(-0.6)
숙박 및 음식점업	138.8(-5.3)	136.6(-1.6)	136.9(-1.6)	136.2(-5.3)	134.3(-1.9)	137.7( 1.1)
정보통신업	162.2(-0.3)	161.8(-0.2)	161.9(-1.0)	159.6(-7.5)	154.4(-4.6)	159.3(-0.2)
금융 및 보험업	159.3(-0.3)	157.7(-1.0)	158.9(-2.2)	156.5(-8.7)	151.1(-4.9)	156.3(-0.1)
부동산업	167.5(-1.1)	166.3(-0.7)	166.6(-1.0)	166.5(-5.8)	159.6(-4.2)	164.4(-1.3)
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	158.8(-0.9)	157.5(-0.8)	157.8(-1.7)	156.5(-7.8)	149.9(-5.0)	155.9(-0.4)
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	158.2(-1.0)	157.5(-0.4)	157.5(-1.1)	156.0(-6.6)	150.3(-4.6)	154.2(-1.2)
교육서비스업	135.9(-0.1)	134.1(-1.3)	132.8(-2.9)	133.3(-8.9)	125.7(-5.3)	131.4(-1.4)
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	150.7(-3.0)	148.3(-1.6)	147.9(-2.6)	146.3(-8.7)	142.0(-4.0)	146.2(-0.1)
예술·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148.2(-1.7)	145.7(-1.7)	144.5(-3.4)	144.4(-7.8)	138.3(-4.3)	143.8(-0.4)
협회·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	160.3( 0.0)	159.5(-0.5)	158.6(-1.9)	158.2(-6.5)	154.0(-2.9)	158.4( 0.1)

주 : 1)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.

2) 2020년 3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.

3) ( ) 안은 전년대비, 전년동평균대비,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.

자료 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(김복순, 동향분석실 전문위원)



## ●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

### ◆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

- 2025년 5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조정사건 건수는 10건
  - － 5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(6건)보다 4건 많은 수치임.
- 2025년 5월 조정성립률 25.0%
  - － 5월 조정성립률은 전년 동월 성립률 33.3%보다 8.3%p 낮은 수치임.

〈표 1〉 2024년, 2025년 5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

	접수 건수	처리 건수	조정성립			조정불성립			행정 지도	취하 철회	진행 중	조정 성립률
			소계 A	조정안 수락	합의 취하	소계 B	조정안 거부	조정 중지				
2025. 5.	10	6	1	1	0	3	1	2	0	2	9	25.0%
2024. 5.	6	8	2	1	1	4	0	4	0	2	4	33.3%

자료 : 중앙노동위원회, 「사건통계」.

### ◆ 중재사건

- 2025년 5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중재사건 건수는 1건
  - － 5월 중재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(0건)보다 1건 많은 수치임.
  - －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중재재정, 행정지도, 취하철회 건수는 0건임.

〈표 2〉 2024년, 2025년 5월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

	접수 건수	처리 건수				진행 중
		소계	중재재정	행정지도	취하철회	
2025. 5.	1	0	0	0	0	1
2024. 5.	0	1	1	0	0	0

자료 : 중앙노동위원회, 「사건통계」.

## ◆ 심판사건

○ 2025년 5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사건 건수는 198건

- － 5월 심판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(200건)보다 2건 적은 수치임.
- －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19.4%(40건), 기각·각하·취하·화해 비율이 80.6%(166건)를 차지함.

〈표 3〉 2024년, 2025년 5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

	접수 건수	처리 내역							진행 중
		계	전부 인정	일부 인정	기각	각하	취하	화해	
2025. 5	198	206	31	9	105	2	32	27	698
2024. 5	200	182	38	7	105	4	16	12	578

자료 : 중앙노동위원회, 「사건통계」.

## ◆ 복수노조사건

○ 2025년 5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노조사건<sup>1)</sup> 건수는 2건

- － 5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(6건)보다 4건 적은 수치임.
- －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14.3%(1건), 기각·각하·취하·화해 비율이 85.7%(6건)를 차지함.

〈표 4〉 2024년, 2025년 5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

	접수 건수	처리 내역							진행 중
		계	전부 인정	일부 인정	기각	각하	취하	화해	
2025. 5.	2	7	1	0	6	0	0	0	2
2024. 5.	6	4	0	0	3	1	0	0	11

자료 : 중앙노동위원회, 「사건통계」.

1) 복수노조사건은 교섭요구, 교섭대표, 교섭단위, 공정대표 사건 등 복수노조제도와 관련된 사건 일체를 말함.

### ◆ 서비스직 최저임금 노동자 절반 월소득 200만 원 ‘미만’

- 6월 9일 서비스연맹은 최저임금 노동자 1,5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음.
-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이 95% 이상을 차지했으며, 이 가운데 50대가 67.2%로 절대 다수를 이뤘음.
- 3명 이상 가구가 70%를 넘었고, 응답자의 31.3%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부양 중이라고 답했음.
- 소득 수준을 보면 응답자의 89.1%가 월 250만 원 미만이었으며, 절반에 가까운 48.5%는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음.
- 월급 외 소득(이자·임대·주식 등)이 전혀 없다고 밝힌 비율은 83%에 달했고, 전체의 45.1%는 월소득의 20% 이상을 빚 갚는 데 사용하고 있었고, 25.9%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경험이 있다고 답했음.
- 생활비 지출 항목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식비(65%)였고, 이외 대출 상환(48.4%), 주거비(29.5%), 의료비(22.8%), 전기·냉난방비(20.5%)가 뒤를 이었음.
- 물가 상승 체감 항목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2.4%가 식비를, 49%가 전기·냉난방비를 꼽았음.
- 특히 임금보다 물가가 훨씬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느낀 이들이 전체의 96.5%에 달했음.
- 근로장려금 제도 이용률이 낮다는 점도 눈에 띈.
- 응답자의 91.7%는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, 이 가운데 절반(53.4%)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음.
- 응답자의 90% 이상은 여성으로,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일하는 유통·학교·돌봄·콜센터 직종에 집중돼 있었음.

### ◆ 보건의료노동자 10명 중 8명 “의사 부족”

- 6월 16일 보건의료노조는 ‘2025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’를 열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.
- 조사 결과 응답자의 83.9%가 의사가 부족하다고 답했고, 간호직은 87.4%가 의사가 부족하다고 답해 다른 직군보다 응답 비율이 높았음.
- 의사 부족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(복수선택)는 응답자의 91.3%가 선택한 ‘진료지원인력에게 의사 업무가 전가되는 것’이었고, 시술이나 수술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상황도

56.9%가 선택했음.

- 응답자 중 진료지원업무를 맡은 이는 10.4%로, 이들 중 진료지원업무 관련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이는 43.9%나 됐음.
- 교육을 받은 이들 중 40.4%는 8시간 이하로 받은 교육이 전부였고, 대부분의 교육이 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졌다(76.9%)고 답했음.
- 지난해 2월 의정갈등이 본격화하며 전공의가 이탈한 이후 응답자 중 과반수인 53.8%가 업무량이 늘었다고 답했음.
- 특히 간호직은 64.7%가 업무 증가를 느껴 모든 직군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, '나의 권한과 책임을 벗어난 다른 직종의 업무를 하고 있다'는 응답도 45.3%로 절반 가까이나 됐음.

#### ◆ 건설업 1분기 산재 사고사망자 11% 증가

- 5월 2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'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 발생 현황' 잠정 결과에 따르면,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37명(129건)으로 전년 동기 138명(136건) 대비 사망자는 1명(-0.7%), 건수는 7건(-5.1%) 감소했음.
- 사고사망자 137명 중 71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하였고, 지난해 같은 기간(64명)에 비해 7명(10.9%) 증가했음.
- 제조업과 기타 업종은 사고사망자가 줄었는데, 제조업은 29명이 숨져 2명(-6.5%), 건설·제조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은 37명으로 6명(-14%) 감소했음.
-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가 증가했고, 50명(억) 미만 사업장에서 83명이 숨져 5명(6.4%) 늘었는데, 50명(억) 이상은 54명으로 6명(10%) 줄었음.
- 특히 5명(억) 미만에서 9명 늘었는데, 업종을 보면 건설업에서 5명(22명→27명), 기타 업종에서 4명(9명→13명)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.
-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 62명(45.3%), 끼임 11명(8%), 물체에 맞음 16명(11.7%)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명, 7명, 5명 감소했음.
- 반면 부딪힘은 11명(8%), 깔림·뒤집힘은 13명(9.3%)으로 각각 1명, 3명 증가했음.
-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집계한 것임.

#### ◆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시행 3년, 시정명령 18.2%

- 5월 18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'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위

- 원회 시정신청 및 처리현황'을 분석한 결과, 제도가 시행된 202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170건 중 31건(18.2%)에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밝혔다.
- 같은 기간 52건(30.6%)은 기각, 3건(1.8%)은 각하됐음.
  - 시정신청 건수가 늘고 있지만 기각률도 높아지면서 차별을 인정받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  - 2022년 기각률은 11.5%(3건)였지만 2023년 26.9%(14건), 2024년 31.5%(24건)로 계속 높아졌음.
  -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기각률은 68.7%(11건)에 달하고, 취하율도 2022년 30.7%(8건)에서 2023년 23%(12건)로 감소했다가 2024년 28.9%(22건), 올해 31.2%(5건)로 다시 늘어났음.
  - 노동위원회에서 차별 시정 판단을 하는 여성 공익위원 비율은 35.2%로 성비 불균형 문제도 해소되지 않았음.
  - 지역별로 보면 인천(7.7%)이 여성 공익위원 비율이 가장 낮았고, 경북(21.4%), 전북(22.2%)이 그 뒤를 이었음.

#### ◆ 경총 “한국 제조업 GDP 중국 의존도 크게 증가”

- 5월 21일 한국경총은 아시아개발은행의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음.
- 경총은 2023년 기준 한국 제조업 GDP의 해외 수요 의존도는 58.4%라고 밝혔음.
- 한국 제조업 GDP의 해외 의존도는 2000년 52.7%였지만, 2023년 58.4%로 해외 수요 영향력이 늘었음.
- 2000년 국내 제조업 GDP의 해외 수요 의존도를 국가별로 순위 매길 경우 미국이 14.8%로 1위, 일본이 6.2%로 2위, 중국이 4.8%로 3위였음.
- 2023년에는 2·3위 순위가 뒤바뀌어 미국이 13.7%로 1위, 중국이 10.8%로 2위, 일본이 2.6%로 3위를 차지해 제조업 GDP의 중국 수요 의존도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음.
- 경총은 “우리나라 제조업 GDP 해외 수요 의존도는 20년 전보다 증가했고, 주요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”이라며, “미국 관세 정책과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로 세계 경기가 위축하면 우리 제조업이 경쟁국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”고 밝혔음.

## ◆ 노인 고용 3명 중 1명 ‘단순 노무’

- 5월 2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‘고령층의 경제활동 실태 및 소득공백’ 보고서를 보면, 2023년 기준 한국 6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37.3%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음.
- OECD 평균(13.6%)의 3배 가까이 높고, 초고령화 국가인 일본(25.3%)보다도 10%포인트 이상 높음.
- 보고서는 한국의 노인 고용률이 높은 이유로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‘부족한 연금소득’을 꼽았음.
- 65세 이상 연금소득자의 월평균 연금소득은 약 80만 원으로, 2024년 기준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(134만 원)보다 낮았음.
- 65세 임금노동자 중 61.2%는 비정규직이었고, 절반가량(49.4%)은 10인 미만 영세사업체에서 일했음.
- 직업 유형별로는 단순노무직 비중이 35.4%로 가장 많았고, 서비스직(15.3%), 기계조작원(15.0%)이 뒤를 이었음.
- 단순노무직의 비중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늘어나 70세 일자리의 60.5%가 단순노무직이었음.
- 지난해 65세 임금노동자는 월평균 임금 221만 원을 받았지만, 70세는 160만 원을 받는 데 그쳤음.
- 보고서는 고령층 임금이 줄어든 주요 원인으로 정규직 일자리 이탈과 노인 ‘경력 단절’을 꼽았음.
- 지난해 기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5~70세 인구의 퇴직 당시 평균 연령은 51.2세였음.
- 다른 일자리를 찾아 재취업한 65세 이상 임금노동자 중 현재 일자리가 생애 주된 일자리와 ‘전혀’ 또는 ‘별로’ 관련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53.2%에 달했음.

## ◆ 직장인 42% “육아휴직 자유롭게 사용 못 해”

- 6월 1일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,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, 직장인 42.4%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.
- 직장인 36.6%는 산전후(출산)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고,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보다 모부성보호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.
- 비정규직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52.3%,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46.5%로, 정규직보다 모두 15%포인트 이상 높았음.
- 민간기업·공공기관 여부, 기업 규모에 따라서도 제도 사용률 차이가 컸음.

- 공공기관의 경우 출산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않다는 응답은 16.5%였음.
- 민간기업은 이보다 2배 이상 응답률이 높았음. 300인 이상은 28.2%,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8%, 5인~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8.1%에 달해 기업 규모별로도 차이가 컸음.
- 성별 응답 격차도 컸고, 여성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47.7%로, 남성 27.7%보다 20%포인트 높았음.
-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도 여성이 49.2%로 남성 36.9%보다 높았음.

#### ◆ 교직 불만족 '절반' 이상

- 5월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국 교사 2,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사의 66.7%가 근무환경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음.
- 특히 교육활동보다 행정업무가 우선시되는 현실을 지적한 교사가 67%,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7.83%로 나타났음.
- 또한 교사노조연맹이 공개한 교사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교직 생활에 '불만족한다'는 응답이 32.3%로 나왔고, 만족한다는 응답은 3.27%로 엇비슷했음.
- 서이초 사건 당시인 2023년과 비교해 만족한다는 답변이 13.2%에서 32.7%로 크게 늘었지만, 교직 생활 만족도는 5점 만점에서 2.9점에 그쳤음.
- "교사가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느냐"는 질문에는 '그렇지 않다'는 답변이 64.9%로 '그렇다'(8.9%)보다 훨씬 높았음.
-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했다는 교사가 58%에 달했음.
-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△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(77.5%) △낮은 급여(57.6%) △과도한 업무(27.2%) 등을 들었음.

#### ◆ 전북지역 교사 98% "현장체험 부담스럽다"

- 6월 16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5월 전북 지역 교사 250명을 대상으로 '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인식'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, 응답자의 98.6%가 "현장체험학습에 부담을 느낀다"고 답했다고 밝혔음.
- 가장 큰 부담 요인은 '사고 발생 시 담임교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'(91%)을 꼽았고, '안전사고 위험이 크다'(67%), '예방조치와 주의 의무를 다할 자신이 없다'(34%)는 응답도 뒤를 이었음.
- 교사의 책임을 일부 완화한 학교안전법 개정 이후에도 불안감은 줄지 않았음.
- 개정안은 보조 인력 배치와 사전 예방조치를 다한 경우 교사가 민·형사상 책임을 지지

않도록 명시했지만 응답자의 74%는 여전히 “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”고 느꼈고, “부담을 줄이기에 부족하다”(29%)는 답변도 적지 않았음.

- 교사 10명 중 8명은 “법적 책임이 명확히 면제되지 않으면 체험학습은 나갈 수 없다”고 했음.
- 이 밖에도 ‘학교 밖 대신 교내에서 체험학습을 실시하자’(44%), ‘보조인력을 교육지원청이 직접 배치해야 한다’(25%), ‘교장·교감 등 관리자가 인솔책임을 져야 한다’(18%) 등의 요구가 나왔음.

(조규준,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)